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8.28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384.60원 (+1.50원)

KOSPI

6,912.37 (+100.16, +1.53%)

KOSDAQ

837.65 (+10.78, +1.30%)

국고채 10년 금리

4.238 (-0.050%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자산배분의 창(窓) 하반기 자산배분, 금의 '어부지리 (漁父之利)'에 주목 [이영주]

하나채권 [8월 금통위] 호미로 막기엔 큰 성장세 [박준우]

산업분석

2차전지 미국 EV 배터리 시장은 희망이 없을까? [김현수]

Weekly

유틸리티 자본확충 이슈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유재선]

글로벌리서치

클라우드스트라이크 AI 보안 수요, 내러티브에서 숫자로 [김재임]

Nvidia 이례적인 중기 가이드스 언급. 메모리 가격 상승 확인 [김록호]

미국 기업 코멘트 엔비디아를 안 살 이유가 없다 [강재구]

리더드라이브 2Q26 Re: 매출 컨센서스 하회, 수익성 악화 [송예지]

도리안LPG VLGC도 운임이 많이 올랐어요 [안도현]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물산, NAVER, 대한항공, KCC, DN오토모티브, 농심, SK이터닉스, 실리콘트, 티에프이

하나증권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28일 | Global Asset Research

자산배분의 창(窓)

하반기 자산배분, 금의 ‘어부지리 (漁父之利)’에 주목

금 반등, 두 번의 모멘텀

금은 여름 조정 이후 빠르게 반등하였다. 8/25 고점 기준, 8월 상승률은 약 15%에 달하며, 이 가운데 최근 1주일 동안에만 7.4% 상승했다. 이번 금 가격 반등 과정에서는 크게 두 번의 상승 모멘텀이 확인된다.

첫 번째는 Fed의 금리인상 기대 후퇴다. 7월 말까지만 해도 선물시장은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반영했지만, 이후 인상 기대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금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했다. 8/26 기준 선물시장에 반영된 9월 동결 가능성은 약 64%까지 높아졌다.

다만 이후 금 가격의 반등은 잠시 주춤했다. Fed의 금리인상 기대가 낮아졌음에도 미국 중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을 제한한 영향이 컸다.

두 번째 모멘텀은 미 재무부의 장기국채 바이백 확대였다. 8/19 미 재무부는 장기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했다. 이후 최근 1주일간 미 30년물 금리는 약 11bp 하락하고 달러도 약세를 보였으며, 금 가격은 추가 상승했다. 높은 장기금리에 막혀 주춤했던 금 가격이 바이백 확대를 계기로 다시 상승폭을 키운 것이다.

늘어나는 국채 공급, 장기금리 상승을 용인하기 어려운 정책당국

현재 미국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국채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재정적자와 기존 부채의 차환으로 국채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해외 공공기관의 외환보유액 다변화와 은행의 B/S 제약 등으로 전통적인 미국채 수요 기반은 이전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여기에 AI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우량 테크 기업의 회사채 발행까지 증가하면서 장기 투자자금을 둘러싼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러한 공급 부담은 국채가격 하락 → 장기금리 상승 → 높아진 금리에 신규 수요 유입의 과정을 거치며 조정된다. 문제는 지금 정책당국이 이러한 금리 상승을 마냥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높은 장기금리는 정부의 차환 및 이자비용을 높이고, 동시에 주택과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까지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국채시장은 늘어난 공급을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반면, 정책당국은 그에 따른 경제·재정적 부담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다. 늘어난 미국채를 어느 금리에서 소화할 것인가를 두고 시장과 정책당국 간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다.

채권시장 개입이 만들어내는 파생효과, 금에는 우호적인 변화

금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늘어난 국채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더 높은 금리를 통해 수요를 끌어들이 수 있지만, 정책당국이 금리 상승을 제한하려 할수록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다른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8/21 World Gold Council(WGC)이 제시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면, 정책 개입은 달러 약세, 미국채의 적정가치와 정책 신뢰에 대한 불확실성, 실질금리 하락 가능성을 통해 각각 달러 가치 · 대체자산 수요 · 기회비용의 경로로 금 가격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첫 번째는 달러다. 늘어난 국채 공급을 소화하려면 더 높은 금리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를 유인해야 한다. 그런데 정책 개입으로 금리 상승이 제한되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위험보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미국채 수요가 약해질 수 있다. 결국 채권시장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조정의 일부가 통화로 이동하면서 달러 약세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금 가격에 우호적인 요인이다.

두 번째는 미국채의 적정가치와 정책 신뢰다. 정책 개입으로 금리 조정이 제한될수록 개입이 없었을 때 미국채가 어느 수준에서 거래됐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미국채의 적정가치와 정책 신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과 같은 대체자산의 상대적 매력은 높아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실질금리다. 현재 기대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핵심 경로는 아니다. 다만 물가 부담이 지속되거나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명목금리 상승을 정책적으로 제한한다면 실질금리가 낮아지면서 금의 기회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지금보다 금리 억제 성격의 정책이 강화될 경우 영향이 커질 수 있는 경로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경로가 동시에 강하게 나타나야만 금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각각의 변화가 조금씩 금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높은 장기금리와 강달러에 눌려 있던 금의 상승 모멘텀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하반기 자산배분, 금의 ‘어부지리 (漁父之利)’에 주목할 필요

물론 이번 바이백만으로 금의 구조적인 상승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바이백 규모는 미국채 시장에 비하면 제한적이고,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도 아니다. 이번 변화의 의미는 금의 상승을 보장한다는 데 있기보다, 그동안 금을 눌러왔던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이는 하반기 자산배분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 AI 투자 확대가 주식뿐 아니라 회사채·사모·신용·인프라까지 확산되면서 투자 수단은 달라도 동일한 투자 사이클에 대한 노출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Fed의 금리인상 부담 완화에 더해, 채권시장과 정책당국의 힘겨루기에서 발생하는 파급효과의 상대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금의 ‘어부지리’가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금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헤지를 넘어 하반기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보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년 8월 27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하나채권

[8월 금통위] 호미로 막기엔 큰 성장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기준금리 3.0%로 2회 연속 인상. 올해/내년 성장 3.3%/2.9%로 상향. '근원'물가도 상향
- 점도표, 6개월 내 1회 추가 인상 제시. 총재도 선제적 대응 이후 속도 조절 시사
- 견조한 성장세 고려 시 최종 3.50% 전망 유지. 11, 2월 추가 인상 및 금리 상승 전망

‘인상’에 놀라고, ‘선제적’에 안심. 그러나 긴축 사이클은 지속

총평: 한국은행은 당사 예상과 같이 기준금리를 3.00%로 2회 연속 인상했다. 성장률과 근원물가 전망을 상향하면서 기준금리를 ‘긴축’ 영역으로 높였다. 다만 ‘선제적’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향후 인상 속도가 점진적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점도표에서도 그 의도가 묻어났다. 그 다음 인상 시기는 11월, 최종 기준금리는 3.50%로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국채 금리는 인상 속도 조절 기대로 하락했으나, 경기 확장 국면의 초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시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한국 국채 투자의견 ‘축소’를 유지한다.

기준금리, 점도표: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에 이어 8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25bp 인상했다. 황건일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점도표는 3.50% 6개, 3.25% 10개, 3.00% 5개로 중간값 3.25%, 평균값 3.26%였다 [도표 2]. 당사 전망(7개, 12개, 2개)보다 평균이 소폭 낮았다.

→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을 벗어나 **긴축 영역으로 진입**했다. 향후 6개월 점도표에서는 추가 1회 인상이 제시된 가운데 3.00% 점에 5개나 찍히면서 상하방 리스크가 고르게 분포됐다. 모든 위원들이 공격적인 인상 속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인상 시점은 10월 동결 이후 11월로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통화정책방향문 및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을 올해와 내년 각각 **3.3%, 2.9%**로 5월 전망치 (2.6%, 2.1%) 대비 각각 0.7%p, 0.8%p 상향했다 [도표 3]. 또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전망은 유지한 반면 근원 물가 상승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2.5%**로 5월 대비 상향 조정했다. 경제 전망치 외에 눈에 띈 부분은 (1) ‘반도체 주도의 성장’ 문구 삭제와 (2) ‘선제적 대응’ 문구 삽입이었다 [도표 10]. 통방문의 첫 문단에서 수출 및 투자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하면서 7월 통방문에 포함된 ‘반도체 부문을 중심’이라는 문구는 삭제했다. 또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 경제전망에는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반영됐다. 이미 GDP갭률이 (-)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내년까지 잠재 이상의 성장률이 이어짐에 따라 ‘근원’ 물가가 높아질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7월 대비 반도체 주도의 성장이라는 표현을 자제한 이유는 **성장세가 반도체 중심에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기자회견: 소득여건 개선이 장기화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강할 것을 우려하여 연속 인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도표 4]. 또한 기저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근원물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표 5].

소득개선의 효과가 GDP의 주요 계정에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지만, 뒤늦게 급격히, 그리고 큰 폭으로 인상하기보다 선제적 인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점도표 중간값이 3.25%인 것도 이미 2회 연속 인상을 단행한만큼 긴축 여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부적으로 잠재 성장률과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GDP 갭률은 기존에 내년 초 즈음 (+)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미 (-)를 회복하여 (+)로 전환되는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모든 회의는 live meeting이며, 10월 통화정책회의 이전까지 주목할 경제지표로 8, 9월 소비자물가, 2분기 GDP(특히 명목) 잠정치, 심리지수 등을 제시했다.

→ 긴축 기조는 분명하지만 선제적 인상을 강조하면서 향후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인상 효과가 확인될 경우 인상의 폭도 크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3.00%를 명백히 긴축적인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제는 인상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점진적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성장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최종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낮게 전망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시장 반응: 국채 금리는 ‘인상’에는 상승으로, ‘선제적’에는 하락으로 반응했다. 9시 50분 기준금리 인상 발표 직후 급등했다(3년 약 8bp 상승). 이는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도표 7]. 다만 이후 통방문을 통해 동결 소수의견과 양호한 점도표를 확인하며 낙폭을 줄였다. 특히 점도표에서 3.0%에 5개의 점이 찍히면서 급격한 인상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두 발언에서 선제적 대응 시 긴축의 강도와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언급에 금리는 되려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나채권 전망: 지난 7월 금통위 이후 8, 11월 그리고 내년 2월 인상을 전망하고(‘7월 금통위] 수요측 인플레이션을 확신한 순간’), 연말 국고 3, 10년 금리를 4.0%, 4.4%로 예상하고 있다(‘월간 하나채권 [8월]’). 이번 금통위는 당사가 예상한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 전망을 유지한다.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전히 ‘축소’다.

한국 경제는 확장 국면의 초입으로, 2026, 2027년 평균 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환경에서 인상 사이클이 단기에 멈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상 사이클 후반부에 금리가 하락한다면, 성장 전망 둔화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금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긴축 강도가 충분히 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금통위 당일 시장의 반응은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에 불과하다. 매크로 여건, 그리고 미국의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 시 최종 기준금리 3.50%는 충분히 가능한 레벨이다. 국고채 금리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8월 28일 | 산업분석_Industry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8월 27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BUY | TP 480,000원 | CP 368,500원

삼성SDI(006400)

BUY | TP 667,000원 | CP 567,000원

2차전지

미국 EV 배터리 시장은 희망이 없을까?

여전히 부진한 EV 배터리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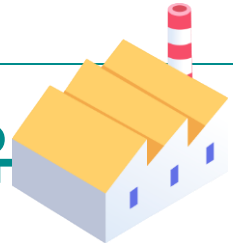
최근 ESS 기대감으로 배터리 섹터 주가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 7월30일 실적 발표 이후 4주간 +57% 상승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EV 배터리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 매출에서 60%를 차지하는 EV 부문의 부진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경우 ESS 성장이 전사 이익 증가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EV 부진은 여전하다. 7월 누적 미국 BEV 판매량은 YoY -28%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한국 셀 메이커들의 EV 배터리 출하량에서 미국 비중 역시 2025년 3분기 47%에서 2026년 2분기 18%로 하락했다.

미국 EV 시장의 한계

미국은 EV 성장이 어려운 환경이다. EV 수요가 우호적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다. 1) EV 평가 하락 : EV 제조회사에서 배터리 팩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25%에서 40%에 달한다. 따라서 배터리 탑재 용량이 커지면 EV 평가 하락의 여력은 자연스럽게 축소된다. 즉,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는 중대형차 비중이 높은 지역일 수록 EV 평가가 낮아지기 어렵다. 미국은 SUV와 트럭 합산 비중이 70%에 달해, 유럽과 한국 대비(40%) 중대형차 비중이 높다. 이로 인해 평균 배터리 탑재 용량이 타지역대비 30%이상 많고 이로 인해 EV 평균 평가는 2025년 기준 유럽 대비 16%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휘발유 가격도 문제다. 미국 전체 리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은 1.3달러로, 독일 2.5달러 등 유럽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등 유류세가 높은 주를 제외하면 리터당 1달러 내외 지역이 대다수다. TCO(Total Cost of Ownership,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EV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위한 1차 전제조건은 내연기관차의 높은 유지비(휘발유 가격)인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작동하기 어렵다. 텍사스에서 내연기관차의 TCO가 EV를 넘어서는 시점은 10년으로, 한국과 독일의 4년 대비 두배 이상 오래 소요된다. 3) 주행 가능 거리도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전기차의 완충 시 최대주행거리는 500km 수준이다.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SUV 및 픽업 트럭 세그먼트가 최대 주유 시 1,000km 내외 주행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데, 미국 자동차 소유주들의 연평균 주행 거리는 19,000km로 동아시아 및 유럽(10,500km) 대비 거의 2배에 달한다. 즉, 미국은 다른 지역 대비 더 긴 거리를 주행하는 특성상 EV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해 Ford와 GM은 전동화 계획을 대폭 축소했고, 현대차 역시 북미는 하이브리드 대응 기조로 전환한 바 있다.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자본확충 이슈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유틸리티 Weekly | 2026.08.28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6.9% 상회했다. 25일 종가 기준 WTI 83.5달러/배럴(WoW -4.4%), 미국 천연가스 2.9달러/mmbtu(+2.9%), 아시아 LNG 현물 23.0달러/mmbtu(+3.9%), 호주산 유연탄 131.3달러/톤(+1.2%), 원/달러 환율 1,385.2원(-0.2%)을 기록했다. 유가와 별개로 LNG 현물 가격은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유지 중이다.
-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약'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관련 전력, 용수 확보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신규로 출자하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출자를 다양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출자금으로 조달할 경우 확충 규모는 상당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2027년 말로 예정된 사채발행한도 배수 한시적 완화 조치의 일몰을 대비한다면 2026년 2분기 말 기준 11조원 가량의 추가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또한 상상 가능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한국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투자비 증가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직접적인 자금 확충이라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재무여력 확보 대비 시장 참여자의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지분 확보가 아닌 SPC 형태의 자금 지원이라면 영향이 중립적일 수 있겠지만 상황 상 자본 확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결국 2022년과 같은 원가 상승 충격이 다시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기 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조치가 공개되었다. 권역별 차등 요금제에서 소매요금이 먼저 확인되었고 남은 것은 지역별 SMP다. 한국전력 요금 인하 2.8조원을 만회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성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기후부 장관의 '산업 경쟁력 위한 전기료 인하 필요' 언급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9~10월에는 신규 원전 도입,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송변전 계획 등이 순차적으로 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2040년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치는 자가용 태양광 16GW 포함 236GW로 제시되었다. 자가용 태양광 제외 220GW는 태양광 155GW, 육상풍력 15GW, 해상풍력 45GW, 기타 4GW로 구성된다. 2040년까지 선형적으로 상승하는데 2030년 이후부터는 다소 완만한 기울기로 성장하는 수치가 제시되었다. 태양광의 경우 기술발전을 고려한 시장 잠재량을 271GW로 설정한 점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11차 전기본의 2038년 대비 12차 전망의 2040년 최대 수요 증가폭은 29.1~35.7GW 수준이고 예비율 22%를 감안하면 35.4~43.5GW로 상승한다. 한편 태양광과 풍력의 피크기여도를 보수적으로 감안한 실효용량은 23.3GW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 12~20GW 내외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 신규 대형 원전, SMR, LNG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다만 해당 수치는 12차 전기본 목표치가 아닌 전망치이며 계획에 담길 실제 수치와 상이할 여지가 있다. 만약 대규모 ESS 도입으로 실효용량을 높일 경우에는 기저전원 추가 계획이 제한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27일 종가 기준 29,450원으로 전주대비 1.9% 상승, YTD 183.2%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한국전력: WEC 지분 인수 뉴스 관련 지재권 확보와 현지 진출까지 이슈 확장. 이론 상 문제는 없으나 현실적 개연성이 관건
- 한전기술: 미국 ARP1400 진출 기대감 부각. 미국에서 대형 원전 대규모 순차 착공이 아닌 이상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SK가스: 자회사 SK어드밴스드 100% 흡수 합병. 이자비용, 공통비용 절감 기대. 중장기 석화 시황 악화 우려가 부담 요소

2026년 8월 27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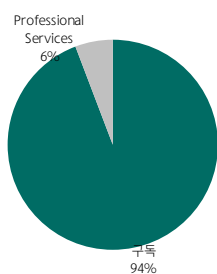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215.85 USD
CP(8.26) 189.18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IT
주요 영업	사이버 보안
홈페이지	www.crowdstrike.com
시가총액(십억USD)	192.6
시가총액(조원)	265.6
52주최고/최저(USD)	227.5/85.68
주요주주 지분율(%)	
뱅크드	10.15
블랙록	8.5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3.2 98.6 79.1
상대	(0.3) 87.5 60.6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3,954	4,812	5,937	7,217
영업이익	838	1,046	1,468	1,905
순이익	987	957	1,275	1,636
EPS(USD)	0.98	0.93	1.23	1.56
EPS(YOY, %)	27.2	(5.1)	32.3	23.9
PBR(배)	192.5	202.9	153.3	123.7
PBR(배)	30.1	25.3	32.7	25.3
배당률(%)	0.0	0.0	0.0	0.0

주: 조정 실적 기준

자료: 크라우드스트라이크, LSEG시장예상치, 하나증권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US)

AI 보안 수요, 내러티브에서 숫자로

2Q Beat & FY27년 가이드스 큰 폭으로 상향, 향후 추가적인 상향 조정 가능성

2QFY27 실적은 '미토스 모멘트' 이후 부각된 AI 보안 수요 상승이 내러티브에서 본격적으로 실적을 통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핵심 지표인 순신규 ARR이 3.3억 달러(+51% yoy)로 가이드스 상회폭이 16%가 넘었으며, 성장 측면에서는 23ppt 상회했다. 더욱 고무적인 수치는 FY27년 순신규 ARR 가이드스를 기존 27.7% 성장에서 34%로 6.3ppt 상향 조정이다. FY27년 첫 가이드스 제시 후 2개 분기 만에 11.5ppt를 올렸으며, 가이드스 산정 패턴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다. 주목하는 점은 3분기 계약 파이프라인이 사상 최대 규모다. AI 가동에 있어서 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상반기에 높아지기 시작했다면 하반기에는 파이프라인의 계약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FY27년 가이드스 대비 업사이드 여전히 높다고 판단된다.

AIDR(AI보안) ARR 1분기 대비 3배 증가, Flex 모델 기반 ARR +101%

1) 신제품인 AIDR(AI 감지 & 대응) ARR이 1분기 대비 거의 3배 증가했다. AI 에이전트가 통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증가하면서 보안 강화가 필수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DR가 기존 EDR에 포함된 기능이 아니라 별도 유료 모듈로서 실적 기여가 빠르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2) 주력 보안 분야 전체가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클라우드 보안, 아이덴티티 보안, 차세대 SIEM이 고성장을 지속, 합산 ARR이 21억 달러로 YoY 39% 증가했다. 3) 계약 내에서 여러 제품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추가할 수 있는 Flex 모델이 성장 가속을 이끌고 있다. Flex 기반 ARR이 22.9억 달러를 상회, 101% 성장했다. Flex 모델은 보안 시장 내에서 통합 사업자로서의 강점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단이다. 4) 엔드포인트 보안 사업이 성숙 시장이라는 인식과 달리 4개 분기 연속 성장 가속화를 이어갔다.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 절반은 여전히 레거시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AI 보안을 위해서 레거시에서 차세대 EDR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어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소수의 보안 통합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투자 심리 더욱 좋아질 것

AI 에이전트 가동이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성능과 자율성이 계속 높아진다면 보안 수요 역시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 1명당 최대 90개의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시장 추정치를 감안하면 AIDR 시장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EDR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AI랩의 자체 보안 솔루션 출시 가능성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그러나 보안은 기술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장기간 축적된 공격, 위협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비롯한 차별적인 보안 데이터 자산 보유가 CRWD와 같은 기존 보안 우량 사업자의 강력한 경쟁력 요인으로 판단된다. 주가는 12M FWD P/CF 84배로 과거 추이(2년 평균 68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아졌으나 소수의 사이버보안 대표 종목들에 대한 리레이팅 구간으로 판단된다. 1) CY26년보다 CY27년에 더욱 본격화될 AI 에이전트 보안 수요, 2) AI 보안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 부문에 대한 기업의 지출 비중 증가, 3) 소수 통합 사업자에 대한 프리미엄 확대를 고려하면 사이버보안 Top pick 종목으로서 업사이드 높다고 판단된다.

2026년 8월 28일 | Global Equity_Earnings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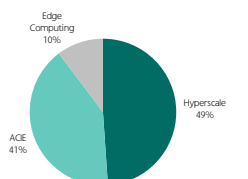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323.7 USD
CP(8.26) 209.7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반도체 & 반도체 장비		
홈페이지	www.nvidia.com		
시가총액(십억USD)	5,052.8		
시가총액(조원)	6,977.2		
52주최고/최저()	236.54/164.07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The	9.94		
블랙록	8.02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1.4	13.4	15.5
상대	(2.2)	2.3	(3.0)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130,497	215,938	399,220	601,021
영업이익	81,453	130,387	263,944	399,796
순이익	72,880	120,067	222,391	334,942
EPS(USD)	3.0	4.8	9.1	13.6
EPS(YOY, %)	130.7	59.5	90.9	49.6
ROE(%)	119.2	101.5	89.5	74.4
PER(배)	48.6	43.0	23.0	15.4
PBR(배)	44.0	29.0	16.5	9.9
배당률(%)	0.0	0.0	0.4	0.4

자료: Nvidia,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박규연 gyuyeonpark@hanafn.com

Nvidia (NVDA.US)

이례적인 중기 가이드스 언급. 메모리 가격 상승 확인

FY2Q27 Review: ACIE 증가폭이 하이퍼스케일러를 상회

Nvidia는 회계연도 27년 2분기 매출액 962억 달러(YoY +106%, QoQ +18%), Non-GAAP 기준 GPM과 EPS는 각각 75%, 2.22 달러를 기록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5% 상회, GPM은 부합, EPS는 6%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17% 증가한 890억 달러를 기록했고, 블랙웰 울트라 인프라의 본격적인 공급이 기여했다. 하이퍼스케일러향(YoY +102%, QoQ +13%), AI Cloud/Industrial/Enterprise향(YoY +139%, QoQ +25%)으로 ACIE 증가폭이 하이퍼스케일러를 상회했다. 중국으로 출하된 데이터센터향 Hopper 제품군의 매출은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다. 엣지 컴퓨팅 매출액은 7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7%, 전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블랙웰 워크스테이션의 강한 판매가 실적을 견인했으나, 메모리 및 시스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용 PC 판매는 둔화되었다. 광범위한 공급업체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향후 몇 년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약정 금액이 지난 분기 1,190억 달러에서 2,79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메모리 조달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FY3Q27 가이드스: 메모리 가격에 의한 수익성 하락

Nvidia는 회계연도 27년 3분기 가이드스로 매출액 1,080억 달러(-2~+2%), Non-GAAP 기준 GPM 73.5~74.5%를 제시했다. 중간값 기준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3% 상회했고, GPM은 소폭 하회했다. 이번 가이드스에도 중국향 매출액은 제외되었다. 3분기뿐만 아니라 향후 GPM에 대한 방향성도 공유되었다. 3분기 및 4분기에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와 신제품의 본격적인 물량 확대 이전에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분기 GPM이 71~72%로 저점을 찍은 후 회계연도 28년 1분기부터는 가격 인상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72~73%대로 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AI 인프라 구축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는 그만큼 수요가 견조하다는 반증이다.

FY2028 매출액 70% 이상 성장

Nvidia는 이번 실적발표에서 이례적으로 연간 가이드스를 언급했는데, 올해도 아닌 내년(회계연도 2028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객들의 수요는 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TSMC의 CoWoS CAPA와 메모리 3사의 HBM CAPA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지 및 전력 등의 인프라를 고려해서 최소 70% 이상의 매출액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가이드스에는 회계연도 28년 1분기부터 반영될 가격 인상 효과와 선제적인 부품 및 공급망 확보 역시 고려했다고 언급되었다. 이례적으로 1년 앞선 전망치를 제시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실적 가시성뿐만 아니라 고객, 주주, 공급망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과 일관된 소통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 및 서플라이체인 업체들이 가시성 높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실적 발표를 통해 중장기 성장 가시성과 메모리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기 때문에 Nvidia뿐만 아니라 메모리 업체들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업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6.08.27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엔비디아를 안 살 이유가 없다

AI 생태계 확장이 만드는 성장 가시성: 시장이 우려한 현금흐름, 순환금융, ASIC에 답하다

- 낮아진 밸류에이션과 달리 FY2028 매출 성장을 +70% 전망. 수요 부족이 아니라 공급 제약을 반영한 수치로, 엔비디아의 중장기 실적 가시성은 오히려 높아짐
- FY2Q27 현금흐름과 매출총이익을 약화하는 수요 둔화보다 운전자본 증가와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본업 경쟁력 훼손으로 보긴 어려움
- 순환금융과 자체 ASIC 확대 우려에도 엔비디아는 금융지원과 범용 플랫폼을 통해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 매출과 반복매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

-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도 싸다. 엔비디아의 EV/EBIT은 15.1배로 5년 평균(30.6배), 2년 평균(23.1배)보다 낮고, EV/Sales는 10배로 5년 평균(16.5배), 2년 평균(15.1배)보다 저평가 되어 있다. 12개월 선행 PER은 23.2배(5년 평균 41.6배, 2년 평균 34.3배)다. 실적과 향후 전망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FY 2Q27 실적 발표에서 시장참여자들이 불안해하는 실적 가시성, 순환 금융, ASIC 반도체와의 경쟁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답을 제시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으나, 포트폴리오 안에 실적이 견조한 엔비디아 비중을 확대할 기회가 될 것이다.
-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FY 2028 매출 성장을 YoY +70%를 처음으로 미리 제시했다는 점이다. 현재 확보 가능한 공급능력에 기반한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고객들의 수요 전망만 놓고 보면 다음해 사업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 제약 요인이라고 했다. 공급 제약이 해결될 경우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과거 1년 앞선 연간 전망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던 엔비디아가 장기 가이드를 공개한 것은 과거보다 높은 공급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 실적과 가이드를 공개 후 엔비디아의 시간외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FY 2Q27 잉여현금흐름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고, 다음 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선도 시장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현금흐름과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선 약화를 수요 둔화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빠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본 부담과 메모리 원가가 동시에 상승한 영향이 더 크다. FY 2Q27 잉여현금흐름은 213억 달러로 전분기 486억 달러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영업현금흐름도 503억 달러에서 241억 달러로 줄었다.
- 현금흐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본 부담이다. 매출채권 증가로 223억 달러, 재고 증가로 58억 달러, 선급비용 및 기타자산 증가로 55억 달러의 현금이 유출됐다. 분기 말 매출채권은 631억 달러, 재고는 316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해 제품을 먼저 생산하고 고객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현금 회수보다 지출이 선행된 영향이다. 벡라 루빈 출시를 앞두고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했고, 일부 투자적 고객의 대규모 구매에 결제기간을 연장하면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45일에서 60일까지 상승했다. GPU 판매에 따른 매출은 먼저 인식됐으나, 실제 현금 수취 시점은 뒤로 밀린 것이다. 이번 분기 현금흐름 약화는 이익창출력 저하가 아닌 높은 성장률에 대응하기 위한 운전자본 투입 확대 영향이 더 컸다고 판단한다.

- 매출총이익률이 낮아진 이유도 엔비디아의 제품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 견조한 AI 수요 덕분에 엔비디아의 플랫폼 판매가 확대되면서 부품이 부족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메모리 가격이 극단적으로 오르고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매출총이익률은 FY 3Q27 74%로 낮아지고 4분기에는 71~72% 수준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2028년부터 72~73% 수준에서 안정화 될 것이라고 했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가 부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판가를 올렸는데, 내년 1분기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메모리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내용이다.
- 시장참여자들이 걱정하는 순환금융은 엔비디아에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엔비디아의 목표는 AI 생태계 확장이다. 젠슨 황이 매년 'Compute is Revenue'를 강조하는 이유다. 우리는 엔비디아가 생태계 확장을 위해 토큰 단가를 떨어뜨리는 중이라고 했다. 빠른 신제품 주기를 통해 고객들이 내려올 수 없는 런닝머신을 만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다. 네오클라우드나 AI 기업들은 고객 수요가 강하지만 빠른 성장에 비해 자체 자금조달 능력과 신용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자체적으로 금융조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엔비디아는 직접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최소매출 보장, 선별적 신용보강, 외부자금 조달 등을 통해 AI 인프라고객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는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에게 일부 용량에 대해 최소한의 매출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을 맺는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함이다. 프린티어 AI 기업들은 빠른 성장에 비해 신용도와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들 가운데 일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약 2GW 규모 컴퓨팅에 선별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할 계획이다.
-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은 엔비디아의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는 도구다. 엔비디아는 신용을 지원한 고객의 클라우드 매출 일부를 수취하는 계약을 맺거나, 일부 AI 기업들에 지분투자를 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강한 현재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AI 팩토리 매출, CUDA 생태계 확장뿐만 아니라 오픈 AI나 앤트로픽 등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면 투자한 지분가치도 커진다. 일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로부터 클라우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취하는 계약도 맺었다. 하드웨어 판매 이후에도 사용량과 연계된 반복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AI 기업의 수요가 부진하더라도 범용성 덕분에 다른 고객이나 워크로드로 재배치할 수 있다.
- 시장참여자들이 걱정하는 경쟁사 및 AI 기업들의 자체 ASIC 반도체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의 범용 GPU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맞춤형 반도체의 경우 특정 클라우드와 서비스, 추론 등에 최적화 돼 있다.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오픈 AI나 앤트로픽 등 AI 기업이 전 세계로 확장될수록 자체 데이터센터만으론 컴퓨팅 수요를 감내하기 어려워진다. 외부 클라우드, 네오클라우드, 소버린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자체 ASIC은 특정 서비스와 인프라에는 효율적이거나, 다양한 클라우드와 지역 인프라에서 활용하기에는 범용성이 낮다는 점에서 엔비디아가 더 유리할 것이다.

2026년 8월 27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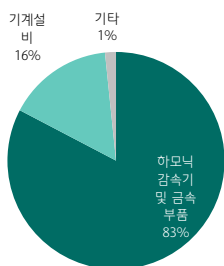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355.09 CNY
CP(8.26) 298.88 CNY

Key Data

국가	CHINA
상장거래소	Shanghai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기계
홈페이지	www.leaderdrive.com
시가총액(십억CNY)	54.8
시가총액(조원)	11.3
52주최고/최저(CNY)	495.66/139.62
주요주주 지분율(%)	
Jiangxi Ruide Venture	28.31
Ganzhou Industrial	5.05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0.8) 23.6 97.0
상대	(3.4) 29.2 94.0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87	571	891	1,336
영업이익	33	111	191	295
순이익	56	124	187	280
EPS(CNY)	0.3	0.7	1.0	1.6
EPS(YoY, %)	(33.5)	108.5	51.1	49.9
ROE(%)	2.1	3.6	5.2	7.5
PER(배)	325.4	277.4	285.7	190.6
PBR(배)	5.3	10.0	14.8	14.0
배당률(%)	0.1	0.1	0.1	0.2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리더드라이브(688017.CH)

2Q26 Re: 매출 컨센서스 하회, 수익성 악화

휴머노이드용 하모닉 감속기의 절대 강자

리더드라이브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 제조업체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YTD +58% 상승했다. 하모닉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 속도를 낮추는 대신 토크를 높여 로봇 관절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액추에이터의 핵심 부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1대당 통상 약 20개가 탑재된다. 높은 정밀도와 내구성이 요구되는 만큼 기술 및 양산 진입장벽이 높으며, 중국 내에서 대규모 납품이 가능한 업체는 2 곳에 불과하다. 과거 중국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하모닉드라이브가 중국산 제품으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리더드라이브의 중국 하모닉 드라이브 출하량 점유율은 28%로 1위를 기록 중이다. 특히 하모닉 감속기를 채택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리더드라이브의 점유율은 약 80%로 추정된다. 리더드라이브는 UBTech와 AgiBot 등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테슬라와 Figure AI에도 소규모 물량을 납품한 이력이 있어 향후 휴머노이드 시장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2Q26 아쉬운 수익성, 해외 매출 급증

2Q26 매출은 2억위안(YoY +36%)으로 컨센서스를 8% 하회했고, 순이익은 3,750만위안(YoY +13%)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전사 GPM은 31.1%로 YoY -3.9%p, QoQ -2.3%p 하락했으며 영업이익률/순이익률도 각각 QoQ -5.8%p/-5.3%p 하락했다. 중국 하모닉 감속기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ASP 하락 압력과 제품 믹스 변화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H26 매출의 83%를 차지하는 하모닉 감속기 매출은 YoY +46% 증가했지만 마진율은 32.8%로 YoY -1.5%p 하락했다. 기계설비 사업부 역시 매출은 YoY +31% 증가한 반면 마진율은 29.8%로 YoY -9.8%p 하락했다. 반면, 해외 매출은 YoY +78% 증가하며 매출 비중이 전년 동기 11%에서 15%까지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다.

중장기 성장 가시성은 높지만,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은 높은 상황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제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올해 리더드라이브의 휴머노이드용 매출이 3억위안(비중 3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더드라이브는 하모닉 감속기 생산능력을 2025년 43만대에서 2026년 100만대, 2027년 20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홍콩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이다. 또한, 7월 SKF와 합작사를 설립해 로봇 관절용 고정밀 베어링의 R&D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SKF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고객사 확보도 기대된다. 중국 휴머노이드 시장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중장기 성장 가시성도 높지만, 현재 주가는 12MF P/E 286배에서 거래되고 있어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향후 휴머노이드용 매출 확대와 실적 성장을 확인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2026년 8월 28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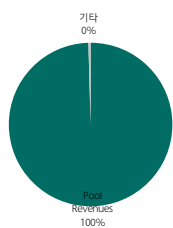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52.38 USD
CP(08.26) 47.90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에너지
주요 영업	석유, 가스 & 소모 연료
홈페이지	www.dorianlpg.com
시가총액(십억USD)	2.0
시가총액(조원)	2.8
52주최고/최저()	52.1/22.1767
주요주주 지분율(%)	
블랙록	13.95
디멘셔널 펀드 어드바이	6.12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5.7 30.5 48.9
상대	2.1 19.4 30.5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353	482	627	384
영업이익	113	210	406	160
순이익	90	194	348	148
EPS(USD)	2.3	4.6	8.0	3.8
EPS(YOY, %)	(70.1)	101.3	74.3	(51.8)
ROE(%)	8.7	17.7	32.2	9.9
PER(배)	9.8	7.5	6.0	12.5
PBR(배)	0.9	1.3	1.5	1.5
배당률(%)	16.6	8.6	8.3	6.7

자료: Bloomberg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도리안LPG (LPG.US)

VLGC도 운임이 많이 올랐어요

LPG 수송 전문 선사, 시황 노출도 큰 특징

도리안LPG는 LPG 수송 전문 선사로, 주로 VLGC(초대형 LPG 운반선)을 스팟 시장에서 운용하며 수익을 얻고 있다. 현재 25척의 VLGC를 운용 중이며, Helios LPG Pool을 MOL Energia와 공동 운영 중이다. 글로벌 VLGC 선대 규모는 약 427척으로, 도리안LPG의 점유율은 6% 내외이다. 도리안LPG는 대부분의 선대를 Pool 내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황 노출도가 큰 특징이 있다. FY1Q27(2026년 2분기)의 평균 운임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45% 상승한 \$75,926/day를 기록한 반면, 운항 비용은 증가하지 않아 수익 증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전쟁으로 인한 미주 LPG 수송량 증가에 파나마 운하 병목까지

최근 VLGC 운임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원인은 결국 미주에서의 LPG 수출량이 늘어나며 톤마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상반기 아라비안 걸프 내에서의 수출량은 47% (YoY) 감소했고, 반면 미국 수출량은 12% 증가하면서 중동의 감소분을 절반 가량 벌충하고 있다. 또 하나의 운임 상승 요인은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의 통항량 감소이다. 미국 휴스턴의 정제시설에서 LPG가 정제되는데 아시아권 수출은 파나마 운하 통항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파나마 운하 옵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통항 우선권은 주로 컨테이너선에게 있기 때문에 VLGC는 파나마 운하 인근에서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거나 희망봉 우회를 선택하고 있고, 따라서 VLGC 운임은 당분간 톤마일 증가에 힘입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VLGC 공급 증가 시기 이연되는 중

우려되는 점은 2026년부터 VLGC 공급이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암모니아 운송용으로 발주된 VLAC(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이 인도되며 2026년/2027년 공급 증가는 연간 10%/12%에 이를 예정이다. 다만 톤마일 증가 효과로 글로벌 LPG&암모니아 톤마일 증가율은 2026년/2027년에 각각 5%/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는 한시름 놓은 상황이다. 좋은 업황에 더불어 도리안LPG는 특별주주환원(배당금 주당 \$1, 총 4,290만 달러 규모)을 시행 한 바 있고, 향후로도 좋은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주주환원은 추가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현재 P/B는 1.5 배로 높으나, 중동 분쟁 지속과 파나마 병목이 본격화될 경우 추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24	281,500	266,000	-5.51%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물산 (028260.KS)	8/24	395,500	375,500	-5.06%	- 원전·SMR·태양광·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신사업 확대와 2027년 배당 증가 전망 2026~2028년 계열사 배당수익의 60~70%를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NAVER (035420.KS)	8/24	222,000	216,500	-2.48%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대한항공 (003490.KS)	8/24	25,800	28,200	9.30%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KCC (002380.KS)	8/24	484,000	469,500	-3.00%	- 삼성물산 특별배당 수취액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재환원하는 정책 신설 - 자사주 소각과 특별배당 6조원 규모 주주환원 강화에 더해 실리콘 업황 업사이클 진입
DN오tom티브 (007340.KS)	8/24	44,200	46,400	4.98%	- 글로벌 공장기계 업황 회복과 우주항공·방산·로봇 등 고수익 산업향 수주 확대 - Heller 인수 시너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 높아
농심 (004370.KS)	8/24	432,500	427,000	-1.27%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의 593억원(YoY +47.6%) 기록 - 복합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SK이티닉스 (475150.KS)	8/24	51,300	55,800	8.77%	3Q26부터 연료전지·풍력 프로젝트와 솔라닉스 후속 사업의 매출 인식 확대 - SK그룹 및 반도체·데이터센터향 재생에너지 PPA 수요 확대 수혜 가능성
실리콘투 (257720.KQ)	8/24	47,650	49,150	3.15%	- 미국·유럽 오프라인 리테일러 주문 확대에 힘입어 2Q26 호실적 기록 - 한국 화장품 산업 역사상 최대 수출 모멘텀의 최대 수혜 업체
티에프이 (425420.KQ)	8/24	40,800	47,550	16.54%	- cpo, socamm 등 어플리케이션 확대, 고객사 다변화로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 테스트 수요 성장에 따른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세 지속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61%	+2.55%p	+73.83%	+11.2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83,000	4.43%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 동시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NAVER (035420.KS)	8/18	228,000	216,500	-5.04%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150,000	4.83%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 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69,000	23.97%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620	-6.95%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66,000	1.3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385,000	21.28%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풍산 (103140.KS)	8/3	71,200	83,000	16.57%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12,000	-7.74%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68,100	-8.84%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480,000	32.26%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5.39%	-0.25%p	+41.83%	-20.7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925	-7.9%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2,155	-19.8%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9,455	33.5%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 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101,310	-5.2%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인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385	-6.0%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교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자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9,885	-6.6%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7,295	-6.2%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9,885	-14.3%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6.51	15.0%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6.52	-2.0%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 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7.51	-1.0%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 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3.66	0.6%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55.77	70.4%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PAVE (미국 인프라)	2026.08.24	56.39	56.21	-0.3%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80.83	-1.0%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68.39	7.8%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등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한국 8월 소비자심리지수 (104.5, 이전치 106.8) - 미국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0.0%, 이전치 0.3%) - 미국 7월 신규주택매매 (-10.5%, 이전치 7.6%)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89.4, 이전치 90.2)	- 미국 7월 개인소득 (0.4%, 이전치 0.2%) - 미국 7월 개인소비지수 (0.2%, 이전치 0.3%) - 미국 7월 PCE (3.7%, 이전치 3.7%) - 미국 7월 근원 PCE (3.3%, 이전치 3.3%) - 미국 7월 내구재 주문 (1.1%, 이전치 0.5%)	- 한국 8월 기준 금리 (3.0%, 이전치 2.75%) - 중국 7월 산업생산 (11.2%, 이전치 15.1%) - 일본 7월 공작기계 수출 (50.4%, 이전치 50.4%) - 미국 7월 도매 재고 (E 0.2%, 이전치 0.2%)	- 일본 7월 실업률 (E 2.5%, 이전치 2.5%)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E 51.0, 이전치 51.0)	
8.30	8.31	9.1	9.2	9.3	9.4	9.5
	- 한국 7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5.8%) - 일본 7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4.1%) - 중국 8월 제조업 PMI (E 49.8, 이전치 49.2) - 중국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49.0)	- 한국 8월 수출 (E --, 이전치 62.9%) - 한국 8월 수입 (E --, 이전치 26.5%) - 일본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5.1) - 한국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1) -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9) - 유로존 8월 CPI (E --, 이전치 2.9%) - 유로존 7월 실업률 (E --, 이전치 6.3%) - 미국 8월 ISM제조업지수 (E --, 이전치 55.6)	- 한국 8월 CPI (E --, 이전치 2.8%) -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E --, 이전치 44k)	- 일본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3) - 유로존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7) - 미국 8월 ISM서비스업지수 (E --, 이전치 55.6)	- 미국 8월 비농업고용지수 (E --, 이전치 -23k) - 미국 8월 실업률 (E --, 이전치 4.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